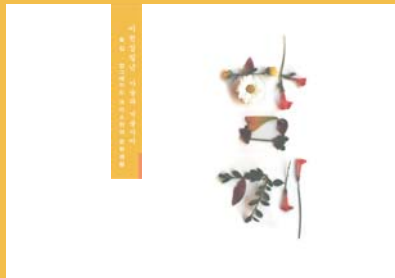


이천십일년 가을과 겨울사이
특집 · 엮그레이드 | 크리스천의 문화생활



Contents



COVER STORY

한 계절과 계절의
간격에는 많은
이야기와 어색한 사진이 있다.
우리 삶의 사이와 사이에도
함께한 빛과 그림자
해맑은 웃음과 아련한 눈물이
배어있다.
함께한
함께하는

2011 _ 가을과 겨울사이

- 목양실 러브레터 4
- 시가 있는 풍경 6
- 특집 “업그레이드_크리스천의 문화생활”
 - 문화생활, ‘나’를 넘어 ‘함께’ 8
 - 우리는 이렇게 문화생활을 즐긴다 16
 - 교회를 통한 즐거운 문화생활 20
- 우리 지체에서는 어떤 일이
 - 다물도 두번 째 이야기 24
 - 초등부 28
 - 청소부에서 바리스타까지 _ 필그림 32
 - 2011 세계선교대회 36



08



32



28



52

함께 5호 _ 가을과 겨울사이

발행일 : 2011년 10월 29일

발행인 : 조상용

편집장 : 김용수

기자 : 심재성, 조재란, 배영미, 신신혜, 최정은

디자인 : 김성범

발행부서 : 문서홍보팀

주소 : 대전시 동구 가양2동 20-11 대전중부교회

전화 : 042-622-9991

홈페이지 : www.jungbu.or.kr

· 우리 이웃 좋은 이웃

골목길 따라 걷다가 44

마을 동아리 DIY 감(感) 48

송춘고 기독 동아리를 찾아서 52

· 중부 그루터기

포토 에세이 56

나의 삶 나의 신앙 58

사모의 글 62

이런 일 저런 일 64

내 숨씨, 우리 가족 67



피할 수 없는 것은 즐겨라!

글 · 조상용 담임목사

얼마 전에 우리교회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잠시 방문한 적이 있다. 그곳에서 나는 아이들의 노는 모습을 바라보고,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어떤 아이는 블록 장난감을 이용해서 멋진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부지런히 손을 움직였다. 또 다른 아이도 이에 질 세라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블록들을 모아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만들었다. 그런데 나머지 아이들은 모두 우두커니 앉아서 그 두 아이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아마도 이 아이들은 자기 손에 블록 장난감을 쥐고 있으면서도, 무엇을 만들어서 놀 것인지 도통 생각을 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이것을 보고 생각한 것인데, 세상에는 창조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이 말은 곧 ‘놀이에 대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바꿔 말할 수 있다. ‘놀이에 대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란, 힘든 일이나 괴로운 일도 놀이를 할 때처럼 즐겁게 도전정신을 가지고 덤벼들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놀이에 대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란, 힘든 일이나 괴로운 일도 놀이를 할 때처럼 즐겁게 도전정신을 가지고 덤벼들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군에 갓 들어온 신병을 훈련시킬 때, 교관이 자주 들려주는 문구가 있다. 「피할 수 없는 것은 차라리 즐겨라!」이 말도 알고 보면 ‘놀이에 대한 마음’의 자세를 강조한 표현일 것이다. 세상에는 무슨 일을 하던 불평만 하다가 결국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등 어디서든지 모든 것에 놀이를 하는 마음가짐으로 임한다면, 기분 좋게 스트레스 없이 지낼 수 있지 않겠는가?

내가 안산동산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모시고 있던 김인중 목사님은 “목회가 내 취미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 그리고 부목사들에게 “취미가 뭐요?”하고 물어보곤 하셨다. 그 때 눈치 없이 다른 대답을 하면 혼을 내셨다. 그 덕분에 나도 담임목사가 되었을 때는 목회가 내 취미가 되어 있었다. 나는 정말 목회하는 것이 즐겁다. 목회만 생각하면 신이난다. 이것이 목회뿐 아니라, 성공적인 삶의 비결이라고 믿는다. *with*

김인중 

| 시가 있는 풍경 |





가을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주여, 때입니다. 여름에는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해시계 위에 당신의 그림자를 얹으십시오.
들에다 많은 바람을 놓으십시오.

마지막 과실에게 결실을 명하십시오.
열매 위에 이틀만 더 남국의 햇별을 주시어
그들을 완성시켜 주시고, 마지막 단 맛이
질은 포도 송이 속에 스미게 하십시오.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지금 고독한 사람은 계속 고독하게 살 것입니다.
잠자지 않고, 책을 읽고, 긴 편지를 쓰고
그리하여 낙엽이 뒹구는 가로수 길을
불안스러이 이리저리 헤맬 것입니다. *with*

| 특집 "업그레이드_크리스천의 문화생활" | 문화생활, '나'를 넘어 '함께'

문화생활, '나'를 넘어 '함께'

글 · 심재성 기자

‘문화생활’의 국어사전 풀이는 ‘문화 가치의 실현에 노력하여 문화 산물을 음미하고 즐기는 생활’이다. 즉, 우리가 현재 즐기고 있는 독서, 음악, 미술, 운동, 여행, 영화나 공연 관람 등 문화적 모든 활동을 가리키는 것이다. 최근 건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소득이 증가하고, 주 5일 근무제 등으로 인해 여가 시간이 많아지면서 개인 또는 가족이나 소그룹 단위의 ‘문화생활’은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다.

이렇게 활발하게 향유되고 있는 ‘문화생활’의 다양한 양상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생활’의 현주소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적 모습을 생각해 보는 일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 등산, 걷기, 여행

우선 최근 부쩍 관심이 높아진 등산의 경우 한 달에 1,2회 산에 오르는 등산인구가 전국 1,800만 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등산은 산을 거닐며 자연을 감상하고 스트레스도 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척추와 허리 등의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또 특별한 기술이 필요치 않아 남녀노소 다함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여가 활동으로 각광받고 있다.



또한 걷기 운동도 주목할 수 있다. 제주도의 올레길로부터 시작되어 전국 각지의 걷기 좋은 숲길, 산길, 옛길들이 하나둘 알려지고 개발되면서 걷기가 등산에 이은 또 다른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걷기 운동은 시간에 쫓겨 수박 겉핥기 식으로 다녀가는 ‘관광’이 아닌, 천천히 자연을 감상하고 그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눈으로, 마음으로 이해하는 진정한 ‘여행’으로서의 의미까지 일깨우고 있다.

등산과 걷기를 포함한 여행의 경우, 이제는 내가 찾아가는 지역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 그 지역과 지역민을 위할 수 있는 여행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른바 ‘공정여행’, ‘착한여행’이 그것인데, 여행이 단순히 ‘관광’이나 ‘휴가’가 아닌, 그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그 지역의 생태와 환경을 지키는 여행으로 탈바꿈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교회 청년회가 다녀오는 국내단기선교 또한 어느 부분에서는 이러한 ‘공정여행’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 체육 활동



위에서 언급한 등산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여가 시간에 즐기는 것이 체육활동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펴내는 ‘체육백서’를 보면 우리나라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은 9만 여개에 이르고, 클럽 등록회원은 300만 명을 넘는다. 이는 10년 만에 3배로 늘어난 수치라 한다. 종목도 118개나 되는데 축구, 테니스, 볼링, 등산, 배드민턴 순으로 동호인수가 많고 보디빌딩, 수영, 농구, 자전거, 탁구, 골프 등도 좋아하는 종목으로 조사되고 있다.

체육활동은 건강과 직결되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건강과 체력 연령이 훨씬 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어느 종목이든 운동은 운동 자체로 재미가 있다. 즐기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축구의 경우 과거 조기축구회가 스포츠클럽으로 조직화되어가고 있듯 단 순히 동호회 차원이 아니라 클럽활동으로 활성화되면서 보다 체계적으로 활동해가는 추세이다. 중고등학교에서도 학교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고 있는데, 체육활동이 국가적인 지원 아래 보다 선진화되고 있는 현재이다. 우리교회에서도 축구, 탁구 등의 종목에서 스포츠클럽이 만들어져 활동 중이다.



· 독서, 음악, 대중문화



최근에 각 지역마다 도서관이 잘 갖추어지면서 주민들의 독서활동도 활성화되고 있다. 도서관에서 개최하는 독서 관련 행사나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독서문화가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독서클럽 활동도 전개되고 있는데, 특히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대한 공감대 속에, 공동 관심 분야의 책을 읽고 독후활동을 하는 독서클럽을 운영해 활동하는 예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음악 분야의 경우, 사람들마다 1인 1악기의 문화소양을 갖추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면서 기타나 피아노 같은 대중화된 악기는 물론 그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개인적으로 즐기는 것을 넘어 같은 취향의 음악 동호인들이 모여 아마추어 밴드나 관현악단을 결성해 공연을 하기도 하고, 가족이 악기를 하나씩 배워 함께 연주회를 열기도 한다.



대중문화의 경우, 영상세대인 청소년들은 물론이고, 7080세대로 불리는 기성세대까지 대중음악이나, 드라마, 영화 등의 주 소비층이 되어 즐기고 있다. 많은 한국영화가 천만 관객을 자랑하게 된 것은 기성세대가 극장으로 가지 않았다면 만들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 또한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공연 문화도 예전에 비해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요즈음이다.



· 우리의 현재

우리 교회의 울타리 안을 들여다보면 다양한 문화생활의 예를 찾아볼 수 있다. 무엇보다 체육활동이 두드러지는데, 다양한 종목에서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교우들은 쉽게 볼 수 있다. 기존의 인기 종목인 축구, 테니스, 탁구, 당구, 볼링 등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등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는 종목도 인기가 있다.

체육 이외의 문화생활로는 음악을 들 수 있는데, 악기의 경우 피아노, 바이올린이며 기타, 드럼 등 다양한 악기들을 배우고 연주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특히 예배 때나 기타 교회행사 등에서 악기를 연주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는 기회가 많다 보니, 악기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더 높아지고 그만큼 많이 즐길 수 있게 된 듯하다.

개인을 넘어 단체로 활동하는 예도 있다. 축구의 경우 '함께'3호에도 소개했듯 교회 내 '축구선교회'가 조직되어 왕성하게 활동 중이고, '탁구선교회' 또한 동호인이 정기적으로 모여 운동을 하고 친선대회를 여는 등 활동하고 있다. 또한 각 남녀 전도회 및 목장들은 종종 등산이나 야외회를 다녀오기도 하고, 제자훈련반 등의 소그룹 모임에서 함께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고 그에 대한 감상을 서로 나누기도 한다.

또한 우리 교회 자체에서 많은 문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유아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놀이와 체험 학습 및 육아 교육을 하는 아기학교나, 노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취미활동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실버대학, 그리고 여러 유익한 강좌를 개설·운영하고 있는 가정사역학교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런 문화 사업은 우리 교회 성도뿐 아니라 이웃 주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 '나'를 넘어 '함께'

앞에서 교회 내 문화생활을 소개했지만 사실 개인으로는 몰라도 단체로는 그 활동이 다양하고 활발한 편은 아니다. 또 그 분야도 체육활동에만 편중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소망하며 소그룹 공동체의 소통과 관계가 우선되어야 함을 알 때에, 다양한 문화 생활의 공유야말로 각 지체별 소통의 폭을 넓히는데 더없이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재능기부'라는 말이 있다. 기부가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봉사활동 차원에서 나온 용어이지만, 우리의 문화생활에 있어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재능을 함께 나누는 일도 '재능기부'가 아닐까 한다. 재능을 서로 나눠주며, 때론 서로 배우다보면 더욱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역사와 유적에 관해 지식이 있는 성도가 관심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모아 테마 역사 여행을 다녀올 수도 있고, 악기에 재능이 있는 성도가 배우고 싶은 성도에게 틈틈이 레슨을 해 주는 일도 가능할 것이다.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성도 간에 또는 남녀전도회 및 목장 등의 소그룹 공동체에서 공통 관심사를 찾는 작은 움직임부터 하나 둘 시작하다보면 점점 그 영역이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각자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관심과 능력을 서로 나누고 함께 즐기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나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이를 찾아 함께 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으리라 본다.

교회 또한 그동안의 문화 사업을 지속함은 물론, 계속적으로 교회 안과 밖에서 성도들이 함께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겠다. 교회 리모델링이 이제 완성되어 있는 이때에 새롭게 단장된 교회시설들이 문화적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with*





우리는 이렇게 문화생활을 즐긴다!

글 · 심재성 기자

우리 교회에는 자타가 공인하는 만능 스포츠맨이 아주 많다. 운동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여러 운동생활을 열심히 즐기고 있는 그 분들 중의 한 분인 정기조 집사님(신도7목장)을 소개한다.



정기조 집사님은 여러 운동에 소질이 있으시고 또 오랫동안 왕성히 활동하고 계신다. 우선 젊어서부터 아마추어 선수로 그 기량을 여러 대회에서도 펼쳐왔던 종목이 테니스이다. **집사님의 경력은 무려 36년이나 된다.** 옥천에서 직장을 다니며 17년간 충북도민체전에 선수로 출전하였고, 대전 대덕구 대표로도 현재까지 5,6년 째 출전 중이다. 그렇게 해서 탄 메달만 해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리고 MTB 자전거 타기의 경력도 7년이나 되는데 옥천 생활 당시 **‘옥천군 생활체육 실용자전거협회장’으로도 활동했다.** 집사님은 ‘자전거는 잡념을 없애주고, 좋은 공기를 마시며 자연과 호흡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으로,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운동’임을 강조하며 여러 성도들께도 자전거 타기를 적극 추천하신다.

자전거는 잡념을 없애주고, 좋은 공기를 마시며 자연과 호흡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으로,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운동’임을 강조하며 여러 성도들께도 자전거 타기를 적극 추천하신다.



그 외 여러 운동에도 소질과 관심을 갖고 있는 집사님이 최근 시작한 운동은 탁구이다. 마침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중부탁구선교회’가 있어 회원으로 가입해 본격적으로 탁구를 즐기고 있으시다.

이렇게 꾸준한 운동을 해 온 것이 뜻하지 않게 찾아온 병마를 이겨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집사님은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건강함으로, 늘 기도하며 봉사하는 여생 속에, 세상이 주는 메달은 족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금메달을 따고 싶다.’는 소망을 갖고 있다 하신다.

공동체 문화생활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중부탁구선교회'를 소개한다.



주중에는 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수요일에 후 모여 운동을 하고, 매월 첫 주 목요일에는 월례회로 모여 운동을 하고 있다.

‘탁구선교회’는 10여 년 전 탁구에 대한 열의로 모인 성도들에 의해 결성되어 지금껏 열심히 활동 중이다. 현재 이영학 집사님(가양10목장)을 회장으로 10여 명의 회원이 주중 모임, 월례회 등을 꾸준히 하고 있다. 주중에는 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수요일에 후 모여 운동을 하고, 매월 첫 주 목요일에는 월례회로 모여 운동을 하고 있다. 모이는 장소는 본관 리모델링이 완료되고 지하 ‘만나홀’을 활용하고 있다.

중부탁구선교회 중부탁구선교회



‘탁구선교회’는 그동안 가양감리교회, 평안교회 등과 교류하며 교회 간 초청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우리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친선대회도 열어 성도 간 친목을 도모하는 활동을 해왔다. 또한 탁구를 매개로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도 해 왔는데, 우리 교회 가양 20목장의 양영준 성도의 경우 ‘중부탁구선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에 오고 성장하게 된 경우라 한다.

탁구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건강 유지와 취미 생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가운데 ‘중부탁구선교회’ 또한 그 회원 구성이 다른 어떤 모임보다 다양함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버대학 탁구부와 연계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탁구 연습용 로봇을 실버대학에 기증하는 등 항상 함께 나누고 함께 즐기려 하는 자세로 활동하고 있다.

탁구대를 상시로 설치해 두고 운동할 수 있는 전용실이 없어 아쉽지만, 아쉬운 여건 속에서도 왕성히 활동하며, ‘함께’하는 문화생활의 모범이 되고 있는 ‘중부탁구선교회’! 지금 이 순간도 에너지 넘치는 활동 속에 탁구에 관심이 있는 모든 성도와 또 이웃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with

교회와 함께 하는 크리스천의 문화생활

이덕완/시인, 영등포교회 안수집사

문화(culture)는 경작(culture)이다. 경작은 자연에 인간의 힘을 가하는 일이다. 따라서 문화는 인간의 모든 발자취요 그 결과다. 그렇게 보면 기독교도 하나의 문화에 속한다. 소위 현대를 문화의 시대라 하지만 언제 문화가 아닌 시대도 있었는가? 다만 문화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커졌다는 말이겠다.

서구의 기독교는 삶과 문화가 함께 걸었다. 음악은 물론 미술과 문학 등 모든 예술이 그렇고, 철학, 건축, 풍습, 정치는 물론 심지어 놀람이나 욕이나 축복을 하는 것도 기독교적이다. 그런데 소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믿는다는 우리나라는 어떤가? 교회 담장을 사이에 두고 그 안팎에서 크리스천의 문화생활은 판이하다.

자, 우리의 모습을 보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으면서 자연보호는 비(非)크리스천에게 맡겨버린다. 교회에서 생산되는 음악, 미술, 연극, 문학 등은 교회 밖에서 호응을 얻지 못 한다. 교회건물은 미학적 완성도를 갖추지 못 해 주위의 풍경을 해친다. 기껏 한다는 문화생활이란 게 야외예배 가서 점심 먹고 오는 것, 자기들끼리 모여서 박수치고 복음찬양 하는 것,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의 성지순례 가는 것, 독서라고 해봐야 영적성장에 관한 편독뿐이다. 심하다고? 그럼 묻겠다.

교회는 모이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흩어져서 실천하는 일이다.

야생화를 얼마나 구분할 줄 아는가? 최근에 읽은 소설 5권만 대보라. 우리나라 기독교 성지 중 어디 어디에 가봤는가? 예술적으로 건물이 아름다운 곳은 어느 교회인가? 클래식 중 감동적인 성가곡을 듣는가? 유전진화론, 우주탄생이론, 동서양고전, 인문학고전을 얼마나 읽는가?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가요를 몇 곡이나 부를 수 있는가? 교회는 모이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흩어져서 실천하는 일이다.

우리는 흔히 교회를 건물과 조직이 전부인 줄로 안다. 하지만 진짜 교회는 예수님이고 그 지점은 ‘나’다. 나는 작은 예수요 움직이는 교회다. 그렇게 보면 나의 문화생활은 삶 그 자체가 된다. 내가 활동하는 모든 범위가 문화의 영역이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여가활동 취미활동 모두가 크리스천의 문화생활이다.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소속부서에서 하는 교회활동은 그 중 일부일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은 어떻게 문화생활을 해야 할까? 그것도 교회라는 배경을 두고 말이다. 다양한 해법이나 방향이 있을 수 있겠으나, 나는 인문학적 활동이 가장 필요하다고 본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소크라테스와 점심을 함께 할 수 있다면 애플이 가진 모든 기술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병철 회장은 “내 모든 경영비법은 인문학에서 나왔다”고 했다. 빌 게이츠는 “인문학이 없었다면 나도 없고 컴퓨터도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크리스천도 마찬가지다. 인문학에 바탕을 두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높은 철학적 사고와 놀라운 창의력과 균형 잡힌 판단력과 깊이 있는 역사의식과 다양한 예술감각과 인간에 대한 통찰과 애정을 갖기에 충분하다.



인문학을 하기 위해선 가장 필요한 게 독서다. 성경이나 영적성장에 관한 편향적 독서에서 벗어나 인문학 고전을 읽어야 한다. 인문학 고전은 서울대학교를 비롯해 많은 기관에서 선정한 게 있다. 독서에 이어 인문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 여행이다. 여행은 편협된 사고를 해체시킨다. 국내든 국외든 많이 다니되 유명하진 않지만 의미 있는 곳을 찾아서 가보야 한다. 또 하나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체험하는 일이다. 박물관, 미술관, 음악회는 물론 클래식이나 재즈를 듣고 그림을 배우는 것도 좋다. 교회 안에서 그런 동호회를 많이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다. 기도를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때때로 글로 써보는 것도 추천할만하다.





인문학에 바탕을 두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높은 철학적 사고와 놀라운 창의력과 균형 잡힌 판단력과 깊이 있는 역사의식과 다양한 예술감각과 인간에 대한 통찰과 애정을 갖기에 충분하다.

십자가(cross)는 교차(cross)다. 이질적인 것을 하나로 합치는 것을 통섭(consilience)이라고 한다. 크리스천은 이제 우물 속에서 나와 울타리를 걷고 마당의 턱을 없애야 할 때다. 21세기는 교회생활이 아니라 크리스천의 문화생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머릿돌은 예수님이지만 모퉁이돌은 '나'다. 인문학에 바탕을 둔 크리스천인 '나'다. 세상을 흡수하고 통섭하고 나를 넓혀라. 수직적 마인드가 아닌 수평적 마인드, 칸막이문화가 아닌 열린문화, 새로운 *노마디즘(Nomadism)이 요구된다. 십자가(cross)는 교회의 종탑 위에 세울 게 아니라 거리의 교차로(cross)에 눕혀야 한다. 그게 크리스천의 문화생활이다. *with*

*노마디즘(Nomadism)

특정한 방식이나 삶의 가치관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자아를 찾아가는 것을 뜻하는 말로, 살 곳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하는 유목민(노마드, Nomad)에서 나온 말이다. 유목주의 라고도 한다. (Wikipedia 참고)





다물도, 아버지의 은혜...

글 · 안해경 (늘 푸른 청년회)

지난 7월 25일~29일 전라남도 신안군 안에 있는 다물도에 다녀왔습니다. 전도사님이 하 4분의 어른, 청년35명, 그리고 사역 내내 시간 시간 열의를 가지고 참석해준 꼬마청년 정의주까지 41명의 대전중부교회 국내선교단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다물도를 찾아왔습니다. 작년에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컸고 다시 온다는 약속을 두고 왔기 때문에 한 달 전부터 시간을 정해 기도로 준비하며 손꼽아 출발 일을 기다렸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집을 짓고 왔습니다.

두 번 말하면 입 아플 우리 늘푸른청년회의 임원단들, 다물도 사역의 시작과 끝을 열고 닫은 땀과 열정의 주역들... 늘 생각해도 가슴 뭉클한 이들의 노력이 다물도 땅위에 견고한 은혜의 터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보기만 해도 든든한 우리 형제들(저들을 보며, 제가 나중에 아들을 낳으면 저들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건강하고 멋진 청년으로 키우고 싶다고 기도 했습니다.) 1팀, 2팀으로 나누어진 도배팀원들은 목과 어깨가 굳어지고 허리가 뭉치고 아팠지만, 마지막 집까지 아무지게 도배해준 든든한 일꾼들이었습니다. 풀칠의 달인인 예인이와 현지까지, 이들이 다물도에 하나님께서 팔 벌려 깎지 끼우신 담장을 세웠습니다.

마을 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에도 왔던 머리하시는 분은 솜씨가 비상하시다”고, “이태리, 패션의 본고장에서 공부하고 온 것 같다”고, “꼬실꼬실한 파마에도 격조가 있다”고.. 다물도의 스타는 단연 박정숙 집사님이셨습니다. 다른 팀보다 30분 일찍 사역을 시작하시고 10분 식사시간에 하루 동안 화장실 1번 가시고, 1시간 늦게 사역을 마무리 하셨습니다. 또한 박정숙 집사님의 부군 되시는 박민수 집사님께서서는 집한 채를 수리하시고 다물도교회 프린팅까지 마무리하시는 환상의 아트콤비를 뽑내셨습니다. 그리고 미용팀의 우리 예쁜 자매들(제가 나중에 딸을 낳으면 저들 같이 하늘하늘, 여리여리 주의 일을 하는 예쁘고 예쁜 청년으로 키우고 싶다고 기도했습니다.) 집사님께서 머리하시는 동안 할머니들의 손에 네일아트를 하고, 말동무를 해드리고, 손 마사지를 해드리고, 집사님의 살뜰이 챙기고 도와 드리는 노력이 다물도에 언제나 열리는 문을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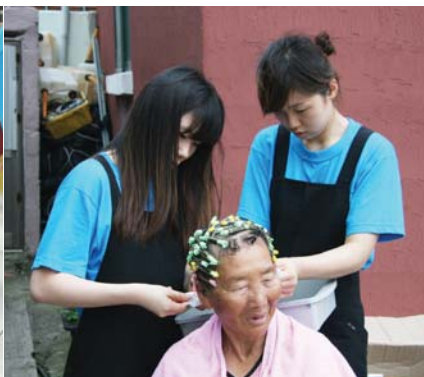


다물도에는 귀한 어린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이들을 맡은 어린이사역팀! 아이들과 같이 물놀이 하고 잔치 때 하이라이트였던 찬무도 짧은 시간에 너무나 완벽히 연습해 내고, 아이들이 예뻐 어쩔 줄 몰라 하던 사랑 가득한 이들의 마음이 다물도에 지붕을 덮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의료전도팀! 마을정자에서, 경로당에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땀을 떠 드리고, 봉침 붙여드리고 타이마사지, 예수님 전하는 일을 성실히 해준 혼성 6인조 예수 그리스도자격증의료단은 주민 분들을 만져 드리면서 오로지 '예수님 이분의 아픈 곳을 고쳐주세요', '이분을 위로해주세요' 마음으로 기도하며 세상의 자격증은 없지만 주님이라는 천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그분들을 만져드렸습니다. 의료전도단의 노력이 다물도에 은혜의 바람이 잘 통하는 창문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역을 가능하게 해준 섬김팀! 끼니마다 정성들인 음식으로 청년들에게 새 힘으로 다신 일어나게 해주신 권사님, 집사님, 다현이, 5일간 어머니 손맛의 집밥이 사역을 무사히 마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섬김팀의 노력이 다물도에 하나님의 집에 밥 짓는 온기를 불러 넣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5개 팀이 다물도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역을 했습니다. 목요일 마을 잔치에 많은 주민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작년에는 교회에 올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둘러 앉아 회의를 하시고 주저주저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올해는 오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느껴졌고 집집마다 이웃분들 이름을 불러가며 교회 잔치에 같이 올라가자고 독려하시며 무리지어 교회로 향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 감동이란, 그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에게 이런 영광스런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울컥울컥 감사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물도에 있는 내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셨듯이 다물도 구석구석을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 했던 그 곳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던 것 같습니다. 돌아와서 바로 다음 주에 전도사님께서 2년 만에 다물도에 열매가 맺혔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5명의 주민 분이 교회에 나오셨고 두 분이 주님을 영접하셨다는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기뻐했습니다. 지금도 기쁩니다. 하나님의 성공된 사역에 도구로 쓰임 받았음에 진정 기쁩니다.

자꾸 느껴지고 자꾸 증명되는 것, **하나님의 사역은 성공도 성공이고, 실패도 성공이라는 것, 고로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실패함이 없다는 것,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를 갈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 청년의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2011년 여름을 다물도 안에 주님의 은혜에 흠뻑 적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전도팀 팀장이었던 저와 함께 해준 사랑스럽고 귀한 팀원들과 아담방 자매들 고맙고 사랑해요!! 그리고 늘 본이 되어 주시는 정영훈 전도사님, 감사드립니다.

with



여호와를 경외하는 어린이 초등부

글 · 박종환 전도사

샬롬!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
들에게 함께 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중부교회 초등부 어린이들은 “여호와를 경외하
는 어린이!” 라는 표어 아래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
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가정과 학
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있
습니다. 이와 함께 교사들은 “양의 문이 되자!”라는 표
어 아래 주께서 맡기신 한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
며 다음 세대를 위한 충성된 영혼의 교사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초등부는 현재 김성무 부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교사들이 주께서 주신 ‘가르치는 직분’을 천직처럼 알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런 선생님들의 헌신과 기도로 주일마다 55~65명의 아이들이 모여 은혜의 예배 감동의 예배 즐거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이면 잘 훈련된 찬무팀의 찬양과 울동으로 예배를 열며 힘차고 섬세한 살롬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이들 스스로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교육한 결과 아이들이 스스로 친구들을 전도하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선생님들과 학생들 사이에 보다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반별로 야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담임선생님의 집에 방문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초등부 전체가 소풍을 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선생님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려 해도 아이들이 너무 바빠 시간을 잘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함께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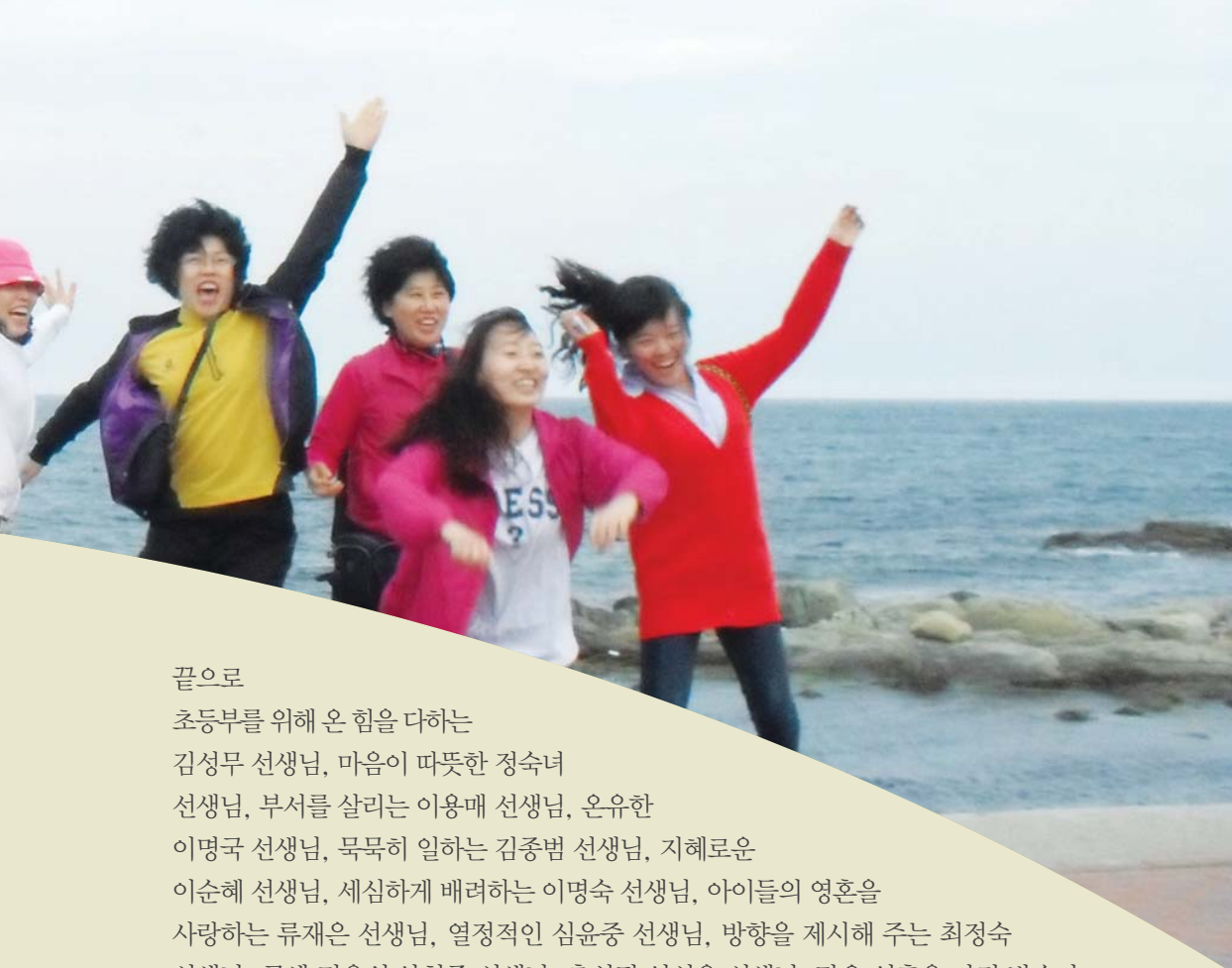
격주마다 선생님들과 학교심방을 통해 아이들을 격려하며 또 새 친구들을 전도하고 있지만 학교심방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있어 이제는 학교에 남아 아이들과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공을 칠 때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고 전도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자 아이들의 경우는 그 접촉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여자 아이들을 만나고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선생님들과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요즘 선생님들과 이야기하는 주된 내용은 내년에 실시하는 ‘주 5일제 수업’에 대해 ‘주일 학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입니다. 이왕 주 5일제 수업이 실시된다면 오히려 주말을 신앙교육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의견입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작은 것 몇 가지를 시도 해 보고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라 체계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계속 시도하다보면 무언가 구체적인 체계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 많은 후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될까요? 분명한 것은 앞으로의 시대는 전인적인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성공하는 시대라 생각합니다. 신체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보다 온전함을 갖춘 아이들에게 미래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좌악된 이 세상에 무방비로 노출된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서 영적이고 인격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과감히 교회교육이 그 답 이라 믿습니다. 지금 교회 학교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길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초등부를 위해 온 힘을 다하는

김성무 선생님, 마음이 따뜻한 정숙녀

선생님, 부서를 살리는 이용매 선생님, 온유한

이명국 선생님, 묵묵히 일하는 김종범 선생님, 지혜로운

이순혜 선생님, 세심하게 배려하는 이명숙 선생님, 아이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류재은 선생님, 열정적인 심윤중 선생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최정숙

선생님, 굳센 믿음의 양현주 선생님, 충성된 임선옥 선생님, 맑은 영혼을 가진 박순자

선생님, 온 몸으로 찬양하는 최향미 선생님, 많은 은사를 받은 신신혜 선생님, 살롬

성가대 큰 언니 김자인 선생님, 청년의 때를 아름답게 헌신하는 김소연 선생님, 하나님

의 사람 최아름 선생님, 주님의 일꾼 김태환 선생님, 그리고 군대에서 고생 할 강경석

선생님, 모든 초등부 선생님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with*



「우리 지체에서는 어떤 일이」 천수복에서 바리스타까지 필그림



글 · 김요한 (늘 푸른 청년회)

“커피 향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득 담아요”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는 오전 9시, 필그림하우스(Pilgrim House: 순례자의 집)의 문을 여는 시간. 각자 위치에서 개인 기도를 마친 봉사자들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일을 찾아 분주히 움직인다. “이 일을 2년 동안 하다 보니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게 되네요~” 봉사자의 손놀림에 여유로움이 느껴진다.

필그림 카페는 커피머신의 스위치를 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카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카페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첫 손님이 방문한다. 동네 주민으로 필그림 카페에 자주 방문한다는 이 손님은 “필그림 카페가 생기기 전까지는 커피가 먹고 싶어도가까운 곳에 커피숍이 없어 포기하는 일이 많았는데 가까이에서 커피 전문점이 생기니 언제든지 마실 수 있어서 좋다. 커피 맛 뿐 아니라 봉사하시는 분들이 친절해서 더 좋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처음에는 휘핑크림, 생크림 얹고 커피 거품 내는 것,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았어요~.”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지만 그러기 위해 남몰래 혼자 연습한 날도 많았다고 한다.

맛있는 커피는 바리스타의 손에 의해 좌우된다. 주문 즉시 신선한 원두를 분쇄하고, 전문가의 손길이 묻어나는 탬핑(tamping: 커피추출 전 원두를 압착하는 과정)과 손가락의 감각에 의지한 우유의 온도조절, 한 폭의 그림을 연상시키는 라떼 아트, 커피의 생명은 온도이기 때문에 항상 따뜻한 온도로 보관되는 컵 등 바리스타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것이 없다.



“필그림 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커피를 만드는 우리의 정성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가 생각해요~.” 이들은 최고의 맛을 내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 커피를 만드느라 하루가 가는 줄 모르던 봉사자들은 저녁 9시, 커피머신의 청소 및 카페 정리 정돈을 하는 것으로 하루를 마감한다.



주일 오후, 청년회 모임이 끝난 뒤에 방문한 카페에서는 카라멜 마끼야또 같이 달콤한 청년들의 교제의 장이 이뤄진다. 인터뷰를 준비하는 순간에도 봉사자들의 손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인다. 입으로는 금방 끝난다고 연거푸 말하지만 30분 넘도록 주문은 계속 해서 이어진다. “의자에 엉덩이 붙일 시간도 없지만, 그 바쁜 가운데서도 내가 타주는 커피 한잔에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면 힘든 것도 다 잊게 돼요~.” 이마에 땀이 맺히도록 일하지만 봉사자들은 여전히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다.

필그림 카페는 교회 생활에 한 부분을 차지 할 만큼 소중한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이따가 필그림에서 봐~”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필그림을 만남의 장소로 인식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작은 쉼터의 역할까지 도맡고 있어서 필그림이 가지는 의미는 크다. 이것은 중부교회 사랑방 안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2009년 문을 연 필그림 카페는 오늘로써 문을 연지 2년, 햇수로 3년째다. 시간은 흘렀지만 봉사자의 얼굴은 여전히 그대로다. “처음부터 이렇게 오랜 시간 봉사 할 줄 몰랐어요. 당시 나는 여전도회 회장이었고, 우리 내에서 봉사자를 세워야 했기 때문에 모범을 보이기 위해 시작했거든요.” 카페 봉사자 대부분이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이고, 집안살림을 챙겨야 하는 가정주부다. 남들처럼 사람들과 수다를 떨며 스트레스를 풀 시간이지만 이들은 봉사란 이름 아래 각자 자신의 개인시간을 내어 필그림 카페 바리스타로 섬기고 있다.

“사실 카페봉사를 시작하면서 시간적 여유는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매번 시간에 쫓기는 가운데 내 개인적인 신앙만큼은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봉사자들은 오전과 오후 타임으로 각각 2명씩 조를 나눠 봉사한다. 이 때문에 예배드림과 신앙생활에 있어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다. 오히려 목사님들과 자주 만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신앙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들의 신앙은 더 깊어졌다.

필그림 카페는 교회 사람들 외에도 외부 손님들이 방문한다. 그렇기에 봉사자들은 항상 밝은 표정을 짓고 말 한마디라도 더 공손히 하려 노력한다. 이제 봉사자들은 교회의 얼굴이 된 것이다. “외부손님 중에서도 자주 방문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취향을 기억해둬요. 다음에 방문할 때 달게 드시죠? 라고 말하면 너무 좋아해주세요.”



어떤 분들은 자신을 기억해주는 바리스타의 시간대에 일부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다. 이러한 작은 관심이 교회 주변의 이웃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외부 손님들 중에 다방으로 오해해 같이 마시자고 하는 해프닝도 있지만 필그림은 앞으로 다방이 아닌 문화공간으로 인식될 것이다. 반면 그동안의 피로를 싹 잊게 해줬던 손님도 있다. 이곳 커피 맛이 제일 낫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분들이다. 칭찬은 고래뿐 아니라 카페 봉사자들도 춤추게 만든다.

「나는 손으로 만드는 걸 좋아한다. 내가 만든 커피를 손님이 맛있게 마시는 것을 볼 때마다 기쁨을 느낀다. 봉사를 시작하면서 제일 좋은 것은 나의 섬김이 교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필그림은 가족 같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카페 봉사를 시작하면서 집사님들께 많은 것을 배웠다. 컵불이 자신의 심지를 태워 환히 밝히 듯 카페 봉사를 우선순위로 하시는 분들을 보면 쉽고 편하게 하려던 내 자신을 반성케 했다.

커피는 쓰지만 그 쓴맛에는 모한 매력이 있다. 언젠가부터 필그림 봉사는 나에게 설렘으로 다가왔다. 바리스타는 만드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커피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중요한 매개체다. 커피는 슬픔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달콤함으로 채워준다.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분과 소통할 수 있듯이 우리는 커피로 사람들과 소통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이다. 커피 한잔으로 그 사람이 위로받고 인도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이렇듯 바리스타는 하면 할수록 참 매력적인 봉사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내 손으로 직접 디자인한 카페를 운영하고 싶다. 그리고 필그림 카페에서 봉사하면서 커피를 통해 사람들에게 커피향보다 더 짙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싶다.」



교회에서 봉사자들에게 이번 여름은 그동안 봉사로 지친 몸을 회복하라는 의미에서 휴가가 편성되었다. 하지만 휴가 기간 동안 필그림 카페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갈 곳이 없다는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기꺼이 휴가도 반납한 채 봉사에 매진하고 있다. 이런 아름다운 헌신이 있기에 오늘도 필그림 카페의 커피 향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우리 마음을 아름답게 한다. *with*

| 우리 지체에서는 어떤 일이 | 2011 세계 선교대회

Mission R



“2011 세계 선교대회”

이룬 것은 무엇이고, 남은 것은 무엇인가?



2011 Mission Revival

2011 Mission Revival 글 · 김용수 편집장

태동과 만남

2011년 9월, 교회가 설립된 것으로는 53년의 세월이 지났고, 선교를 시작한 것으로는 21년의 세월이 지났다. 지금 우리는 파송된 선교사를 통해 선교지에서의 사역이 처음 대전중부교회가 세워지고 한 뼘씩 자라날 때 겪었던 성장통과 비슷한 애환이 담긴 이야기를 듣는다. 처음에는 파송지(중부교회)의 후원으로 교회를 세웠지만 이제는 그때 뿌린 한 알의 밀알이 소중한 싹이 되어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나누며, 사랑의 공동체를 꾸려 나가는 소식을 듣는다. 그 소식의 이면에는 우리 교회가 처음 예배당을 세우고 사랑과 기쁨으로 공동체를 다독이던 모습이 그대로 담겨있다.

우리는 왜, 이 시기에 대전중부교회에서 만나야 했는가? 김정배 선교사 가족을 태국으로 파송한 이후, 매년 여름이면 청년들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선교의 열정을 지펴 나갔다. 태국을 기점으로 몽골, 태국, 싱가포르, AX국으로 선교사를 단독파송하고, 우리 교회 출신의 선교사가 열방으로 나아가면서 단기선교는 선교를 지원하고, 배우고, 체험하는 일의 모범이 되어왔다. 그러나 올해는 단기선교 지역을 우리 교회로 정하였다. 흩어져 펼친 선교의 열정을 한데 모아 새로운 20년을 준비하고 실천하는 장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선교사 가족과 현지 동역자들이 교회의 후원자들과 만나서 소통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만든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다시 되돌아보며, 서로의 손을 잡고 마음을 아우르는 “2011 세계선교대회 Mission Revival”을 개최하였다.

우리는 왜, 이 시기에 대전중부교회에서 만나야 했는가?

흩어져 펼친 선교의 열정을 한데 모아 새로운 20년을 준비하고 실천하는 장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선교사 가족과 현지 동역자들이 교회의 후원자들과 만나서 소통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만든 것이다.

세계로 펼쳐진 선교의 물결

해외 파송선교 21년, 우리 교회는 파송 선교 초기에는 생각지도 못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가장 큰 열매는 선교에 대한 열정을 통하여 선교를 이해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바를 찾아 실천지향적인 선교의 비전을 피워낸 것이다. 우리 교회에서 배출한 선교사는 파송선교사 네명(김정배 선교사, 이종현 선교사_1998년 몽골, 윤명호 선교사_2000년 태국, 천지인 선교사_2005년 AX국)을 포함하여 우리 교회와 직접 연관이 있는 열네명의 선교사를 배출하였다. 네명의 파송 선교사 외에도 우리 교회 출신의 선교사가 많이 배출되었는데, 천강민 선교사(몽골 1991년), 강대성 선교사(가이아나 1991년), 김재정 선교사(1995년 태국)가 선교지로 향했다. 그다음부터는 청년의 시대가 다가왔다. 청년들이 파송선교사의 사역지를 단기선교로 방문하며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내가 나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된 것이다. 정식으로 신학공부를 통하여 선교사의 꿈을 이루어 가는 청년도 있었고, 일단 평신도 선교사로 현지에 정착하여 선교를 지원하고 후원하는 과정에서 선교사의 길로 들어선 청년도 있었으며, 자비량으로 현지에서 중, 단기 선교를 실천한 청년도 나왔다. 박영진 선교사(태국 1998년), 임태호 선교사(태국 1998년), 김현숙 선교사(2001년 몽골 은혜교회 1년), 임명숙 선교사(2001년 한나호 섬 선교 2년), 권정현 선교사(태국 2002년), 박하영 선교사(2005년 태국), 장석현 선교사(2008년 태국)가 후원교회를 통하여, 혹은 자비량으로 선교의 물결에 합류했다.

해외 파송선교 21년 가장 큰 열매는 선교에 대한 열정을 통하여 선교를 이해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바를 찾아 실천지향적인 선교의 비전을 피워낸 것이다.





만남, 나눔을 통한 하나됨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맺은 선한 열매를 보기 위해 매년 여름이면 늘푸른 청년회가 중심이 되어 선교 현장을 방문했다. 그러기를 20여 년, 올해는 각지에 파송된 선교사와 현지 동역자를 우리 교회로 초청했다. 그동안 간헐적으로 선교사와 동역자가 방문한 적은 있으나, 모든 파송지의 선교사와 동역자가 일시에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일을 위해서 또 한 번 청년회가 나섰다. 우리 교회의 푸른 꿈이며 10년 후, 20년 후에는 이들 또한 세계 각처에서 선교사로 동역자로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될 청년회는 우리 교회 선교의 모퉁이 돌이 된 자부심과 끝없는 열정으로 또 한 번 큰일을 해내게 된 것이다.

세계선교대회를 통한 만남의 의미는 무엇인가? 조상용 담임목사님은 “지난 21년 간 우리 교회 선교사역을 되돌아보고, 향후 우리 교회가 나아갈 새로운 선교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계선교대회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였다. 또한 “이 선교대회가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동안 배후에서 힘써 온 교우들이 선교의 열매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기뻐하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우리가 같은 날, 같은 자리에 함께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였다. 20여 년 전 선교의 터전을 만든 김주원 원로목사님은 “선교를 통해 새 생명을 바라보는 기쁨이 있기를 바란다”면서 “돌이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부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하셨기 때문이다”라며 축하해 주셨다.

세계 선교대회에서 펼쳐진 꿈과 사랑

세계선교대회는 예배와 만남, 간증과 나눔, 다짐과 친교 등으로 이루어졌다. 첫날 환영 리셉션을 통해서 선교사와 현지 동역자, 우리 교회의 준비위원들이 모여 환영과 만남의 기쁨을 나누었다. 둘째 날 개회예배는 김주원 원로목사께서 설교를 맡아 주셨고 선교세미나는 김태규 목사님(은혜교회)이 ‘목장과 선교’를 주제로 우리 교회의 지역별 작은 교회인 목장을 통하여 어떻게 선교를 이루어 나가고 활성화 시킬 것인가를, 정기드온선교사(HOPE 선교회)님은 ‘평신도와 선교’를 통하여 선교에 있어서 평신도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현지인 동역자의 간증도 이어졌다. 둘째 날 릴리 처 장로(싱가포르 글로리장로교회, 썬터팜 선교회 이사)님은 김정배 선교사와의 선교 동역을 설명하면서 “대전중부교회가 태국과 싱가포르 선교를 위해 노력하는 것에 감사하며,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태국 77개 도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대전중부교회의 비전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몽흐벌드 목사(몽골 은혜교회)님은 은혜교회를 통해서 변화된 자신과 몽골인으로서의 유례없이 충신신대원을 졸업하고 목사로 안수 받은 감격을 나누었다. 또한 “대전중부교회가 몽골에 은혜교회를 통해서 변화의 물꼬를 열어 주었듯이 은혜교회도 선교의 귀한 뜻을 이웃 나라에 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하였다. 셋째 날은 PASDUSDEE, CHAIKORN(태국 마나카현교회, 육군소장)의 간증으로 전통적인 불교 국가에서 나라를 위해 기여할 것을 찾던 중, 경제적인 발전과 민주화를 이룬 한국을 주목하게 되었으며, 그 바탕에는 하나님을 믿고 선교하는 한국교회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는 “태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임을 믿고, 태국에서도 중부교회와 같은 일을 하는 교회가 많이 생기도록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아리오나 집사(몽골 은혜교회)의 간증에서는 듣는 모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리오나 집사의 가정생활은 몹시 불우했다. 남편의 술과 폭력으로 자녀를 돌보며 경제생활을 이끌어야 하는 자신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 한때 우리나라에 거주하며 직장생활도 했었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고난의 꽃을 피우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따로 있었으며, 아리오나 집사는 몽골에서 은혜교회를 만나게 되었고, 은혜교회를 통하여 안정과 기쁨을 되찾게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간증에서 현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노력과 헌신, 인내와 결실을 알 수 있었다. 조상용 목사님이 목격한 “선교의 열매를 직접 확인하는” 일을 통해 기쁨을 나누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대회 기간 중, 선교부흥회는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었다. 이재환 선교사(잠비아, COME MISSION 대표)는 첫째 날 ‘절망이라는 희망’, 둘째 날 ‘소명이냐, 사명이냐?’, 비전선포식에서는 ‘바울의 나실인의 삶’을 말씀하였다. 선교에 대한 우리의 개념적이고 피상적인 의식을 바로잡고 일깨우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선교사님은 열정과 호소로 오랜 기간 아프리카 오지에서 온갖 풍파를 겪어내면서 경험한 선교의 소중한 뜻을 전달해 주었다. 말씀과 깨달음을 통한 철저한 되돌아봄과 회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열지 못하면 한국 교회는 세계에 유래가 없을 만큼 가장 빨리 성장하고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가장 빨리 쇠퇴하는 교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말씀과 깨달음을 통한 철저한 되돌아봄과 회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열지 못하면 한국 교회는 세계에 유래가 없을 만큼 가장 빨리 성장하고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가장 빨리 쇠퇴하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



비전선포식과 20년 내에 20명의 선교사 파송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행사를 위한 행사이다. 행사를 위한 행사는 적당한 동기와 집단적 힘만 합쳐진다면 언제나 가능하지만, 잘못된 자부심으로 우리 허영을 채울 뿐이다. 이러한 잘못된 자부심과 자화자찬은 시간이 지나 갈수록 우리를 외롭게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을 선포하였다. 세계선교대회 마지막 날 조상용 목사님은 “세계선교대회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서는 안된다. 우리 교회는 이제 새로운 세계 선교의 비전을 선포한다. 이제부터 20년 후에는 20명의 선교사가 새롭게 파송될 것이다. 매년 1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것이다. 이러한 비전과 노력으로 우리는 세계선교를 향해 더욱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 대전 성시화를 이루어 나가는데 전력을 다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고 선포하였다. 이러한 선포가 없다면 우리가 애써 마련한 세계선교대회는 무엇이란 말인가? 이러한 다짐이 없다면 세계선교대회를 뒤로 하는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고 남는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이제 우리는 마음과 뜻을 명확히 했다. 이제 정성을 다하는 일만 남았다. 오늘의 세계 선교대회는 4개 국가에서 모인 선교사님과 동역자가 함께 했지만, 20년 후에는 24개국에서 모인 선교사님과 동역자가 함께 할 것이다. 아니, 현지에서 새로이 개척된 교회까지 합하여 모일 것이고, 그 자리에 몇 개 교회가 될 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지금 청년은 장년이 될 것이고, 장년은 교회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지금 양육하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20년 후에는 청년이 되어 대전중부교회의 선두에 서서 현장을 누비고 세계를 우리 안에, 우리를 세계의 품 안에 담을 것이다. 그것이 세계선교대회를 열어두고 닫지 않는 이유이다. *with*





“글이 말을 걸어오다.”

글 · 신신혜 기자

송촌평생학습도서관

가을 햇살의 부드러움을 타고, 글이 말을 걸어오는 곳으로 향한다.

굽은 도로를 따라 언덕길을 오르고 보니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물, 바로 송촌평생 학습원이었다. 작년에 새롭게 단장된 모습이 친근하게 다가온다. 건물 구석 구석에서 풍겨나오는 여유로움이 마음을 먼저 열어 보이게 하는 곳이다.

아담하지만 차 한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작은 정원과 파라솔도 마련되어 있고, 문화 공간과 예술 공간을 접목 시킨 듯 한 작품은 눈을 사로잡는다.

주변 주거단지와 초등학교, 작은 뒷동산의 중심의 위치해 지역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책을 읽는 것은 힘들거나 피곤한 것이 아니라 휴식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는 것이다. 문장들이 마치 음악처럼 곳곳에 숨어 있다가 뒹겨 나와 우리들에게 말을 걸어오는 느낌이다.



산(山). 호(湖). 빛 대덕구의 상징색깔인 파랑, 초록, 주황을 적절한 곳에 배열하여, 대덕구의 대표 도서관임을 상징하고 있다.

여러 편리시설과 체계적인 운영시스템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여름과 겨울방학에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되어있다. 또한 새롭게 단장된 평생학습도서관은 게이트볼장뿐 아니라 아담한 정원과 문화공간이 있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홈페이지(<http://lib.daedeok.go.kr/>)를 이용하면 된다.

송촌평생학습원에서 나와 돌아가는 길에 생각해 본다.

책을 읽는 것은 힘들거나 피곤한 것이 아니라 휴식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는 것이다. 문장들이 마치 음악처럼
곳곳에 숨어 있다가 튕겨 나와 우리들에게 말을
걸어오는 느낌이다. 그런 즐거움을
여러사람들이 더 느끼고 살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송촌평생학습원으로 향하는 길을
다시금 돌아본다.





가양 도서관

하늘 가득 가을햇살의 눈부심을 품은 날이다. 가을하면 독서의 계절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것 처럼 이번 가을맞이로 교회 인근에 있는 도서관을 찾아 보았다.

가양도서관은 가양동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언덕에 위치한 도서관은 교회에서도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해 있다.

가양도서관은 신도맨션 9동 옆을 지나 예전 홍사단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봄에는 벚꽃으로 여름에는 시원한 나무그늘과 여러 행사로 가을에는 하늘과 어우러지는 단풍으로 늘 우리 곁에 있으면서 도서관으로써만이 아닌 마을의 쉼터 역할을 하고 있다.

가양동 우암로 277번길에 위치한 가양도서관은 동구에 5개(가오, 판암, 용운, 성남, 가양) 도서관 중 하나이다. “책은 꿈과 희망을 이야기합니다.”라는 문구가 들어오는 가양도서관은 언덕에 위치해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각종 프로그램은 지역주민들에게 책과 함께하는 가족문화를 활성화하고자 수준 높은 지식정보 제공과 다양한 독서활동 등을 운영하고 있다.

봄에는 벚꽃으로 여름에는 시원한 나무그늘과 여러 행사로 가을에는 하늘과 어우러지는 단풍으로 늘 우리 곁에 있으면서 도서관으로써만이 아닌 마을의 쉼터 역할을 하고 있다.





책을 도서관에서만 뿐만 아니라 집에서 편하게 읽고 싶다면 도서대출도 가능하다. 도서대출증을 만들면 가양도서관뿐 아니라 동구 모든 도서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9월과 10월에는 토요일마다 인형극을 관람할 수 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도서관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이용자 중심의 눈높이 맞춤 서비스를 극대화하고 지식사회의 선진 도서관상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도서관에는 분기마다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접할 수 있도록 신간이 많이 채워져 있다. 책을 도서관에서만 뿐만 아니라 집에서 편하게 읽고 싶다면 도서대출도 가능하다. 도서대출증을 만들면 가양도서관뿐 아니라 동구 모든 도서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9월과 10월에는 토요일마다 인형극을 관람할 수 있다. 아이들과 함께 인형극을 보고 싶다면 가양도서관을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또한 가양도서관 홈페이지(<http://gayanglib.donggu.go.kr>)에 들어가면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으며, 더 다양한 프로그램과 궁금함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가양도서관은 지역주민들과 아이들에게 더 친근한 도서관으로 다가가고 있다.

이 가을 마음과 눈을 한 권의 책에 담아보고 싶다면 가양 도서관으로 발길을 옮겨 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with*



| 우리 이웃 좋은 이웃 | 마을 동아리 DIY 감(感)

느낌으로 감동을 만드는 가구 동호회

DIY 감(感)

요즘 웰빙 열풍을 타고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서 '이 세상에 단 하나 뿐인 나만의 가구'를
브랜드가구의 절반도 안되는 비용으로 내가 직접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DIY가구를 만드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글 · 배영미 기자



대덕구 중리동에는 DIY가구 만들기 매력에 흠뻑 빠진 어른들의 놀이터이자 공동 작업실인 동호회 DIY 감(感) 공방(<http://cafe.naver.com/diagam>)이 있다.

학창시절에 발휘됐다면 더 좋았음직한 고도의 집중력과 학구열로 톱질과 페인트칠을 하는 아마추어 목수들의 작업장.



▶ 팔아이를 위한
어린이 싱크대

땀에 젖은 모습이 분명 고되 보이는데도, 즐거운 놀이라도 하듯 연신 웃음이 떠나지 않는 이곳에는 나뭇결 만큼이나 곱고 따뜻한 사연들이 커커이 쌓여있다.



“나무 향을 좋아해서 시작 했는데 첫 작품이라 너무 뿌듯합니다.”

LA다저스의 ‘찬호 PARK’이 허락도 없이 본인 이름을 갖다 썼다는 박찬호 회원의 소감이다. 유머러스한 성격에도 막상 카메라를 들이대니 갑자기 쑥스러워하며 어색해했지만, 격양된 어조에 담긴 벽찬 감격은 사그라 들지 않는다.

혼자 작업 중인 회원들 속에서 서로 자기가 더 잘한다며 티격태격하는 모습마저 답살스러운 예쁜 커플이 눈에 띈다. 11월에 결혼을 앞둔 설동균, 최지나 예비부부다. 사내커플로 당차고 야무진 지나씨가 좋아서 한번 퇴짜 맞고도 꾹꾹하게 도전해서 결혼에 골인하게 됐다는 예비 신랑은 앞으로 식탁, 화장대, 침대도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한다.

▶소박한 웃음 한방을 날리는
박찬호 회원

▶2명 VS 5명으로 아직 합의 안 된 가족 계획으로 줄다리기 중인 예비부부
압튼 두분 행복하세요^^



공방에 있는 모든 장비를 자유자재로 사용 할 만큼 달인의 포스가 느껴지는 우효창 회원은 3년차의 베테랑 회원이다. 아토피에 시달리는 아이를 위해 친환경 공간을 만들어 주고 싶어서 딸 혜림이 출생 기념으로 책장을 제작한 것이 DIY의 시작이었다. 이번엔 최대의 피톤치드를 방출한다는 편백나무로 두 아이의 침대를 만들기 위해 사무실에서 공방으로 퇴근하다보니 힘들긴 하지만 그 만족도는 500% 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든다.



▶이제 혼자 잘거라며 기대에 부푼 혜림이와 딸바보 아빠 우효창 회원



▶실장님과 주임님이 너무 친절해서 옥천에서 다닌다는 장경성 회원

가구 제작 동호회 DIY **가**는 평생 회원제이다. 6주간의 기초 교육 재료비를 포함한 회원 가입비가 35만원으로 다소 부담스러운 듯 하지만, 저가의 전동드릴과 직소기, 샌더기만을 구입하는데도 20여만 원이 들었던 개인적 경험에 비추어볼 때, 작업 공간과 고가의 공구를 평생 무료로 사용하면서 제작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다니 굉장히 효율적인 듯하다.



“우리 동호회의 최대 장점은 가족적인 분위기입니다. 부부 중 한사람만 가입하면 배우자와 자녀까지는 동등한 자격이 주어지구요, 또 청주, 관저동, 테크노밸리에 있는 타 공방과의 연계 교육으로 이사할 경우엔 가까운 공방에서 동호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있지요.”

박록용 주임의 동호회 사랑을 입증이라도 하듯, 작은 자재는 그냥 주기도 하고, 집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공구도 빌려주고, 완성된 가구가 엘리베이터에 안 들어가 10층까지 계단으로 올려주어서 너무 감사했다는 등 회원들의 높은 만족도를 동호회 카페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대전지역 DIY가구 동호회의 선두 주자인 박용 실장은 “처음엔 취미로 시작했지만 프리랜서로 활동하기도 하고 창업해서 공방을 직접 운영하는 회원들도 있다.”며 사업적 전망을 희망적으로 말한다.



▶손수 나무를 자르고 다듬고 매만지는 사이 자연을 담아버린 형제, 박용 실장과 박록용 주임

손재주가 없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초보 목수들의 길잡이가 되어 줄 **DIY** 동호회의 친절한 도움을 받다보면 어느새 근사한 작품이 만들어진다. 나만의 필요에 의해 설계한 가구가 상상했던 모습 그대로 완성될 때의 그 짜릿한 쾌감과 보람을 느껴보자.

게다가 가구를 만들며 뜻이 맞는 사람들과 교제도 하고, 만든 가구는 집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어 가족들까지 더불어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론 짹짹한 부수입도 만질 수 있다 하니 일석사조의 취미 생활인 셈이다.

관심이 있다면 DIY가구제작에 한번 도전해보라. 자유롭고 창의적인 DIY만의 매력을 만끽하면서 ‘아마추어 목수’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with*

송춘고 주바라기

“비지 BG”

글 · 신신혜 기자



하늘에서 빗방울이 소리없이 내리는 날이었다. 송춘고 주바라기 인터뷰차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향하는 길. 많은 생각들이 소리없이 내리는 비처럼 내려지는 것은 왜 일까?



주바라기 이종윤 간사와 어제 통화 후 만나기로 한 송춘고 후문에 도착을 했다.

몇 분 후 도착한 이종윤 간사와의 만남. 처음 본 사람이지만 친근함으로 다가온 이종윤 간사의 “안녕하세요!” 참 좋은 목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다가올 수 있도록 친근한 인상과 말투를 갖고 계신 이종윤 간사. “네 안녕하세요 아이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나요” “이 쪽으로 오시지요.” 그렇게 향한 곳 본관 3층에 위치한 음악실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벌써부터 많은 송춘고 친구들이 모여 있었다.

“안녕하세요, 간사님” 아이들의 해맑은 목소리와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서로 간의 귀한 소통함을 주시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자리를 채워가는 아이들. 찬양 가운데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를 뭉클함이 느껴졌다.

그들의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또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간사님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고 말씀을 하는 시간 내내 귀한 시간을 체험하고 있는 듯 했다. 12시10분부터 12시40~50분까지 드려지는 예배시간. 그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이렇게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에 모인다. 한참 클 나이, 한참 많이 먹고 놀고 싶은 나이인데 그 시간을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시간으로 드려지는 그들. 귀하다.

40명,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어느 시간보다도 이 시간이 좋다고 한다.



기도시간 한 친구 한 친구 곁에서 그들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예수님을 보는 듯 했다. 예배 후 짧게 갖은 인터뷰에서 송촌고 주바라기 명칭은 “비지”였다. 뜻을 물어보니 ‘by the God!’ 또 ‘콩비지’라는 두부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라는 뜻도 있다고 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비지도 이렇게 쓰임을 받는 것처럼 이 아이들도 하나님께 낮은 자리에서도 꼭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 원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수줍게 웃어주는 리더 이효주! 얼마나 귀엽던지. 비전은 교내의 복음화! 또한 다른 학교는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 없어 옥상이나 주차장에서 드리는데 음악선생님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음악실을 내주어서 이 또한 축복이라며 감사하다는 아이들. 주변 지역 교회에 바라는 점을 묻자, 웃어주며 하던말 .. 모임을 할 때, 음악실 사용이 어려울 때, 주변 교회에서 장소를 제공해 주었으면 한다고 했다. 또한 괜찮다면 간식과 후원도 바란다고 했다. 아이들의 순수한 대답이 참 가슴에 와 닿았다. 불편한 점은 없냐는 질문에 “하하하~ 간사님이 불편해요! 바뀌주세요. 하하하~” 아이들의 장난스런 말로 웃음바다가 되었다. 그 농담에서 그들 속에서 서로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다.

비지의 뜻을 물어보니 by the God! 또 콩비지라는 두부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라는 뜻도 있다고 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비지도 이렇게 쓰임을 받는 것처럼 이 아이들도 하나님께 낮은 자리에서도 꼭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 원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종윤 간사와 오늘 처음 같이 참석했다는 주바라기 선교모임에 실습(?) 나온 간사와 짧게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주바라기선교회에서 매주 대전 곳곳의 중.고등학교를 다니며 이처럼 점심 시간을 이용하여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뭉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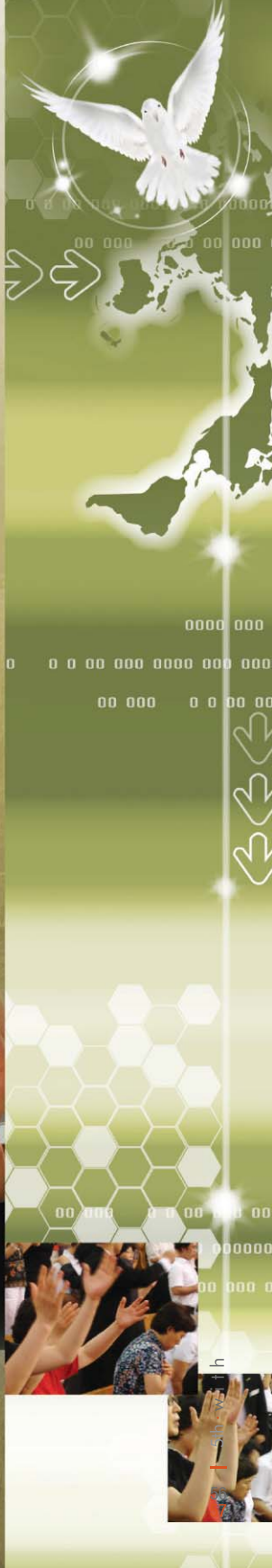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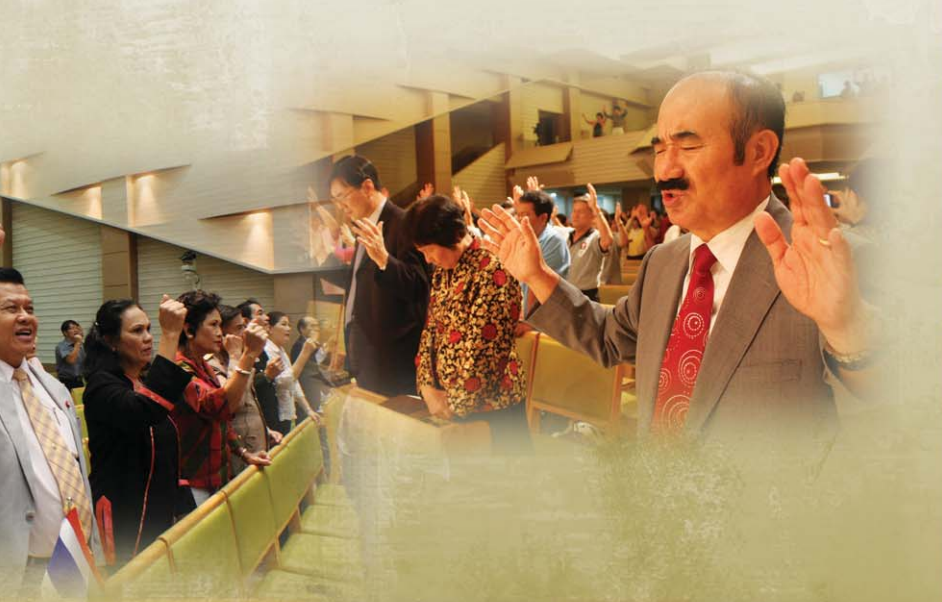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로 아이들은 말씀에 목말라있고, 그 한 번의 예배 마저도 드려지지 못하고 수업을 받는 주일이 있기에 더 더욱 이 선교가 얼마나 큰 비전인지 알 수 있었다. 명석고에서 시작된 이 귀한 사역의 예배는 지금 대전 구석 구석 발 닿는 곳마다 모여지고 있다고 한다. 아쉬운 점은 지역교회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후원과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한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을 나누면서 학생들의 작은 비전이 이렇게 뜨겁게 퍼져나가고 있음을 보니, 그 관심이 더욱 절실히 진다. BG 화이팅!!! *with*





주변 기록 | Photo Essay





| 중부 그루터기 | 나의 삶 나의 신앙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글. 최정은 기자

김순희 권사님의 삶과 사랑과 신앙

알베르 까뮈를 무척이나 좋아했던 문학소녀, 초등학교시절 경상남도 100미터 선수로 활약하며 육상선수로서의 큰 꿈을 품었던 지난 날 한국의 우사인 볼트, 요리솜씨와 그림솜씨가 남다른 수채화 같은 여인 김순희 권사님(관저목장)의 삶과 사랑과 신앙을 들어보자.



부산시 동래구에서 6남매 중 2녀로 태어나 행복한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과 형제들과의 우애 속에 어린 시절과 성장기를 보내며 동래내성초등학교, 중앙여자중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신앙생활은 1983년경 고향 후배인 故 문명순 권사님의 권유로 당시 한창 건축 중이었던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시작하게 되었다.

“회원이었던 남편이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시작한 사업이 실패로 끝나 너무나도 힘든 생활이 계속되었어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하나님께 매달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그때의 간절한 기도 속에 체험으로 알게 되었으며,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고 말씀 안에서 신앙에 전력할 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죠.”

지금의 교회가 건축되고 입당예배를 드릴 때 문명순 권사님과 함께 큰 잔치를 치르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던 일, 세 아이의 교육을 위해 직장생활을 하면서 토요일 퇴근 후 강대상 꽃꽂이를 할 때 김덕현 장로님의 아들인 어린 요한이가 강대상을 오르내리며 친구가 되어 주었던 일, 교회에서 처음 파트별 취미교실이 열렸을 때 요리교실을 운영하며 김경순 권사님, 장정자 권사님 등 여러 집사님들과 동네 동아리가 되어 어느 파트보다도 오래 지속되었고 지금도 각별한 사랑으로 만남이 이어지고 있는 일 등 무수히 많은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다.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온전히 알게 될 것이기에 믿음은 더 이상 필요치 않아요.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는 우리 소망의 온전한 상태에 이를 것이므로 소망 또한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것이에요. 하지만, 사랑은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법칙이며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본체이시므로 사랑은 천국에서도 영원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도 항상 피차간에 사랑의 빛진자들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부디 서로를 향해 비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다면 우린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로를 불쌍히 여겨 긍휼을 베푸세요. 우린 모두 연약하잖아요.”

한국타이어 책임조리사로, 요리강사로(여성회관, 문화센터 등), 대전엑스포 단체급식 분과위원장(대전시장 위촉)으로 이루 왕성한 전성기를 구가하시던 권사님은 위중했던 심근경색 중에서도 하나님의 도움과 불굴의 의지로 회복할 수 있었고 79세인 지금도 여전히 일을 하면서 활동 중입니다.

무엇보다 권사님을 요리강사로 70세까지 강단에 설 수 있게 한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여성으로서 올바른 삶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신 친정어머니(최수명 여사)가 저에게는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자 멘토이며 친구셨어요. 한사람의 아내로서 여섯 자녀들의 어머니로서 늘 한결같으셨던 어머니의 삶을 가까이에서 보았기에,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이 저로 하여금 무슨 일에 있어서나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한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불교가 뿌리 깊은 시택에서 평생 지내던 제사를 모두 모아 한 번의 추도식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기쁘고 힘들었지만 시택가족들을 설득할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는 권사님은 남편 이동주집사(집사님은 2011년 6월 25일에 대한산악연맹 창립회원 원로모임인 60대 사론회에 초대회장에 선임되셨다), 장남 이창석(스노우보드 고등학교 교사), 장녀 이진영(푸드스타일리스트), 차남 이창원(회사 중견간부로 재직), 며느리 홍명아(콘트라베이스지도강사)와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계신다.

온가족이 영육 간에 강건하길 바라며 앞으로의 남은 삶을 교회, 이웃, 친구들과 더불어 미소짓는 나날이 되기를 기도하시는 권사님, 권사님이 일생을 통하여 마음에 새겨 다짐하는 신앙고백을 들어보자.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권사님의 이와 같은 진심어린 신앙고백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화답하실까?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가 가야할 길에 대한 끝없는 두드림과 실천

글 · 박경민 사모

내가 있는 지금의 자리는, 한 남자(임규혁 목사)의 아내로 세 아이(건호, 순호, 진호)의
엄마로, 주님의 일을 맡은(LMTC) 사모 간사로의 삶이다.

부산 출신인 나는 교사 선교사의 꿈을 안고 청주로(한국교원대) 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대학생활과 동시에 시작된 CCC에서 훈련들은 올바른 내 신앙의 탈을 조금씩 벗게 되
는 시간들이었다.

“주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요 21:15)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학창시절, 양을 부탁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장의 삶을 살게 되었고 그 속에서 성장하며 성숙해 갔던 나는 사역자의 삶을 선택하게 되었다. 수없이 많은 간증과 인도하심과 돌보심의 손길... 모든 생활을 100% 후원으로 살아가야하는 CCC 간사의 삶은 날마다 흥해를 건너는 것과 같았다. 그러한 상황에서 부담감을 주시는 세분에게 (충북 도지사, 학교 총장님, 부산 본 교회) 특별한 기도편지를 보냈고 그분들로부터 거금의 후원금을 받게 되었다. 부르심에 도장을 찍게 하셨던 사건이었다. 하지만 배우자 만큼은 선교단체 간사를 만나고 싶지 않았다. 평생 이렇게 후원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내게는 너무나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님은 학생 때 드렸던 평생 간사의 삶에 대한 고백을 기억하셨던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의 멋진 남편을 만난 것이 아니겠는가! 결혼 이후 연이은 출산으로 삶에 급급했던 나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무단히 노력하며 살았다. 그래서 그랬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거나 살펴보지 못했던 것 같다.

마흔을 바라보는 요즘, 인생의 전환기를 맞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나 자신에 대한 정체감, 사모를 기대한 삶도 아닌데... 나도 여전히 주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역자로 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나의 존재감의 혼란과 갈등 속에 헤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남편의 자리에 따라 달라지는 나의 모습, 늘 학생들만 대했던 나는 학생들과 있을 때가 편했는데 어느새 지금은 11학년과 두 배의 나이 차이를 접하면서,... 앞으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어져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두려움과 답답함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런 나를 아시고 상담을 공부하도록 사모함과 길을 열어주셨고 배움을 통한 은혜를 주시고 계신다. 나의 나뭇의 회복, 태초에 나를 지으셨던 나의 모습으로 나에게 주신 달란트 그 자원으로 섬기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맞닥뜨려지는 나의 모습에 마음이 너무나 쓰라리고 아프지만, 건강함으로 나를 세우고 만지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느낀다. 우리 교회에서 훈련하고 있는 가정상담 학교에서 예상치 못한 주님의 예비하심의 은혜를 맛보고 있다. 아직은 여정 가운데 있다.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붙잡고 가실지 기대한다. **요셉이 자신의 있는 자리에서 충만히 살아갔던 것처럼 꿈과 비전을 잃지 않고, 잊지도 않고 그렇게 주님을 기대하며 이 길을 가려한다.** 내가 내 길을, 내 걸음을 궁급해 하는 것 보다 더욱 더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하셔서 감사하다.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주님께 더 나아가도록 돕는 자로 나의 나뭇을 가지고 잘 섬기고 싶다. 매일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한다. *with*

리모델링, 새로운 변화의 시작

교회 1층과 지하층의 리모델링이 모두 끝나고 지난 9월 18일 완공감사 예배를 드렸다. 이번 리모델링은 지난 해 본당 리모델링에 이어 올 초부터 진행되어 왔는데 많은 분들의 수고와 노력 덕분에 무사히 끝나게 되었고, 이제 2년여에 걸친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드디어 모두 마무리된 것이다.

깔끔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물론이고 실속 있는 공간으로 재배치된 1층과 지하층의 모습을 둘러보자.



지하층



이번 리모델링에서 가장 많이 바뀐 공간이 아마 지하층일 것이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우리 교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식당의 확장이다. '만나홀'의 이름으로 새롭게 단장된 식당은 30여개 식탁과 150여개 좌석의 넓고 쾌적한 공간을 자랑하며, 한쪽에 별도의 식탁을 배치해 새가족이나 외부 손님들을 위한 자리도 마련하였다.



지하 로비 앞쪽으로는 넓은 통유리와 편안한 색상의 벽지가 인상적인 유아부실이 있다. 그동안 2,3세 유아와 엄마를 위한 공간이 마땅치 않았던 차에 유아부실이 마련됨으로써, 앞으로 유아들을 위한 알찬 예배와 교육이 가능하게 되었다.

복도쪽으로는 한나실, 소그룹실, 청년회실, 비품실, 기계실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소그룹실은 각종 소그룹 모임들이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복도 끝에는 소예배실이 있다. 소예배실은 총 72개 좌석의 자리를 갖추고 있으며, 소예배와 각종 세미나, 그리고 찬양대 연습 등에 사용된다. 또한 소예배실 안에 작은 기도실 세 개가 마련되어 있어 기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1층



1층에는 중예배실과 교회사무실, 가정상담실, 교역자실, 목양실, 회의실이 있다.

중예배실은 180여 좌석이 있으며 중고등부 예배를 비롯해 크고 작은 예배와 교육 등에 쓰일 수 있는 공간이다. 중예배실 안에는 방송실과 중고등부실, 비품실이 함께 갖추어져 있다.

중예배실과 복도를 사이에 두고 교회사무실, 가정상담실, 교역자실이 마련되었다. 가정상담실은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공간으로 앞으로 새가족을 비롯하여 가정상담에 유용하게 쓰일 전망이다. 복도 끝에는 리모델링 이전과 마찬가지로 담임목사님의 집무와 새가족 영접 등에 사용되는 목양실과 당회 및 새가족 양육 등에 사용되는 회의실이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그동안 꼭 필요로 했던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속 있게 완공된 교회 1층과 지하층의 공간을 통해 우리는 이제 보다 편리하고 아름다운 환경의 교회를 보게 되었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교회 리모델링은 완전한 완공이 아닐 것이다. 이 땅에 위대하고 영광스런 주님의 교회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 각자의 변화된 모습이 있을 때, 진정한 의미의 리모델링 완공이 되는 것이라 믿는다. *with*



사포위에 그린 부지개 정원

그림 · 최민지(6, 유치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민지(6)는 동생 재민(3)과 유치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큰숲 어린이집에 다닌다. 웃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여운 민지는 할머니 송요춘 권사의

막내딸 이은희 집사의 큰딸이다. 2030부에서 활동하는 아빠 최윤호 성도와 엄마 이은희 집사는 차분하면서도 항상 다정한 인사로 성도들을 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믿음의 가정에서 풍겨져 나오는 향기를 느낄 수 있다. 또한 천강민 선교사(몽골)는 송요춘 권사의 사위이기도 하다. 믿음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 가을에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다. *with*



깊어가는 가을
 영하의 내일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가슴은 더욱 더 뜨거워 집니다.
 새로운 시작 · 새로운 영적 회복의 장(場)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11

심령부흥사경회

New Beginning

주제. 새로운 시작!

when. 11.6. (주일) - 9(수)

7:30p.m 5:00a.m

where. 대전중부교회 본당

박은조 목사 (분당샘물교회담임)

